**벧후0312 Note**

**◆ ‘새 하늘들과 새 땅’에 관한 말씀들**

사3404. 그리고 하늘의 모든 무리가 용해되며(마카크:녹이다,흐르다,쇠하다,사라지다,쇠잔하다,썩다,녹다,수척해지다), 하늘들이 두루마리와 같이 함께 감겨지느니라(말리느니라), 그리고 잎이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듯이, 떨어지는 무화과가 무화과 나무로부터 떨어지듯이, 그들의 모든 무리가 아래로 떨어지느니라.

사6517. 보라, 이는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함이라. 그리고 예전의 것은 기억되지도, 또한 마음[레브:마음,정서,중심,이해,지혜]에로 오지도 않느니라.

사6622. 여호와가 말하느니라, 이는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서 남아있듯이, 그렇게 네 씨와 네 이름이 남아있음이라.

히1226. 그때에는 그분의 목소리가 땅을 흔드셨느니라,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약속하셨으니, 이르시되, 그럼에도 한번 더 내가 땅뿐만이 아니고 하늘도 흔드느니라.

히1227. 그리고 이 말씀, "그럼에도 다시 한번"은 만들어진 것들과 같은 흔들리는 것들의 제거를 의미하노니, 그러면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은 남아있을 것이니라.

Ω벧후0310.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니라,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(로이제돈: 윙 소리가 나는,깨지는 소리를 내는,큰 소리를 내는) 굉음과 함께 사라지며, 또 기초적인 것들(스토이케이온: 배열에서 순서적인 것, 연속적 구성,요소,원리,기초)이 뜨거운 열로써 녹으며, 또한 땅과, 그 안에 있는 수고(에르곤: 노역,행위, 수고,일)들이 태워지느니라(카타카이오: 태워 내리다,다 태워버리다, 타다).

Ω벧후0311. 그렇다면 이들의 모든 것들이 용해되는 것을 알고 있으니,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며, 또 그 날에로 서두르면서(스퓨도: 속도를 내다, 열심히 하도록 재촉하다, 간절히 기다리다,서두르다), 온갖 거룩한 품행(아나스트로페:품행,처신,행위,대화)과 경외함(유쎄베이아: 경건, 복음의 개요,거룩)에서 너희가 마땅이 어떤 류(類)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?

벧후0312. 그날에는 불타고 있는 하늘들이 용해되며, 또 기초적인 것들(스토이케이온: 배열에서 순서적인 것, 연속적 구성,요소,원리,기초)이 맹렬한 열로써 녹느니라.

벧후0313. 그럼에도,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, 그 안에 '법적 깨끗함'이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(프로스도카오: 예기하다,기다리다,기대하다),

Ω계2101.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느니라, 이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사라졌음이라(파레르코마이: 가까이 오다,곁에 오다,접근하다,도착하다,가다,사라지다,소멸하다,소홀하다,파하다,지나가다), 그리고 더 이상 바다가 없었느니라,